

김연아 “나라는 선수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주요”

피겨 여왕의 은퇴…긴 여운을 남기다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나’는 질문에 “잊혀지지만 않으면 만족” 여왕의 겸손

“난 괜찮은데 주변에서 더 화를 내신다” 러시아의 점수 퍼주기 논란에도 의연

17년 선수생활 마감…“즐거분하네요”



김연아가 21일(한국시간)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소치 | AP뉴시스

“그냥… 저라는 선수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연아(24·올림픽포즈)가 23일(한국시간) 열린 2014소치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갈라쇼를 끝으로 17년의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결과는 모두가 기대했던 올림픽 2연패가 아니었지만, 현역선수로서 마지막 무대에 최선을 다했다. 최고의 모습으로 ‘작별’을 고한 김연아는 “경기가 마무리되고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판정에 대해서는 억울함도, 불만도, 미련도 없다. 나에게 메달 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하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김연아는 12일 소치로 입성해 선수로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냈다.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전과 달리 여유가 넘쳤다. 이유가 있다. 그녀에게는 다시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김연아는 2010밴쿠버올림픽 금메달 이후 더 이상 피겨를 해야 할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 다시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고, 은퇴도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녀가 다시 스케이팅화를 신은 이유는 딱 하나, 후배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2013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올림픽 출전권 3장을 따내 박소연(17·신목고)과 김해진(17·과천고)을 데리고 소치에 왔다.

화를 내신다”며 “판정에 불만을 갖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쇼트나 프리에서 큰 실수 없이 연기를 마쳐서 그걸로 만족한다”고 의연하게 대응했다.

소치에서의 일주일, 피겨선수로서 김연아의 삶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이제 더 이상 경쟁대회에서 그녀의 모습은 볼 수 없다. 팬들은 아쉬움이 크겠지만, “지금까지 달려오기만 했다”는 김연아는 “즐거분하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김연아는 피겨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곱 살 때 처음 스케이팅화를 신었던 순간부터 피겨의 매력에 푹 빠졌다. 엄마를 졸라 링크에 가던 소녀는 남들보다 한 번 더 뛰고, 한 번 더 돌며 세계 최정상에 올라섰다.

김연아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피겨는 그녀에게 “떠려야 뛸 수 없는 인연”이다. 피겨를 통해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고, 배운 점도 많다. 김연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 깨달음이 선수로서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모든 걸 내려놓는 김연아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물었다. 그녀는 꿈같이 생각하던 “어떤 선수가 아니라 ‘나’라는 선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외신기자들은 김연아가 공식인터뷰에 응할 때마다 올림픽 2연패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 “2연패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 목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욕심이 없다.” 이 말에 거뿔은 조금도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김연아의 사전에 ‘대충’이란 단어는 없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클린 연기’라는 유일한 목표를 세우고 심 없이 훈련했고, 끝내 해냈다. 그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마치자, 전 세계의 찬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금메달은 러시아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에게 넘어갔다. ‘점수 퍼주기’ 논란이 들끓었고, 외신들도 편파 판정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억울하게 빼앗긴 금메달이었다.

가장 속상할 사람은 당사자였을 텐데, 김연아는 오히려 담담했다. “난 괜찮은데 주변에서 더

의외의 대답이었다. ‘피겨 여왕’, ‘밴쿠버올림픽 챔피언’, ‘소치올림픽 은메달리스트’, …, 그녀를 수식하는 단어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스스로는 자신을 ‘어떤 선수’라고 규정짓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라는 선수가 있었다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했다.

그게 바람이라면 이미 이뤄졌다. 그녀는 한국민들과 전 세계 피겨 팬들의 기억 속에 ‘역대 가장 아름다운 연기를 펼친 피겨선수’로 강렬하게 각인됐다. 그녀의 이름 석자는 피겨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돼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한 마리 나비와 같이 우아하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스케이팅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소치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소트니코바의 엄청난 갈라쇼 퍼포먼스 2014소치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는 23일(한국시간)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갈라쇼에 형광색 대형 깃발을 들고 나타난 요란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실수까지 곁들여진 이 퍼포먼스를 놓고도 ‘힘랑미달이다’, ‘빙어났지 퍼포먼스 같다’는 등 구구한 반응과 해석이 나왔다. 소치 | AP뉴시스

김연아의 눈물이 아름다운 이유 “준비한 걸 다 보여드려서 만족” 쿨하게 결과 수용

마침내 기대와 경쟁서 벗어나…즐거분함에 눈물

김연아(24·올림픽포즈)가 대한민국을 위로했다. “처음부터 나에게 금메달은 중요하지 않았다. 더 간절한 사람에게 줬다고 생각한다”고 다독였다. “나보다 다른 분들이 더 화내시는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이 모든 게 ‘김연아’다워서, 대한민국은 한 번 더 몽클했다.

김연아는 한국피겨스케이팅의 신화였다. 척박한 땅 위에 어렵게 뿌리를 내리고, 힘겹게 줄기를 뿜어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 처음에는 관심이 부족했다.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한 뒤에도 자비를 털고 빛을 내 국제대회에 참가해야 했고, 발에 맞는 스케이팅화를 찾기 어려워 은퇴를 결심했

던 나날도 있었다. ‘어린 김연아’는 그저 ‘비인기 종목의 무명 선수’였다.

시니어 무대로 올라선 다음에는 관심이 벽쳤다.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역대 최고점수를 세우는 장면이 TV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된 뒤였다. 순식간에 ‘피겨 요정’이 됐다. 일본의 라이벌도 제치고 경쟁자가 없는 1인자로 성장하자, 이번엔 ‘피겨 여왕’의 반열에 올랐다. 그녀의 어깨에 놓인 짐도 변화하는 호칭들만큼 무거워졌다.

김연아는 이 모든 순간을 겪고, 이겨냈다. 관심과 기대가 부족할 때도, 남질 때도, 그저 한결 같았다. 묵묵히 자신과 싸웠고, 늘 넘어섰다. 마

지막 무대였던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도 그랬다. 러시아의 홈 텃세에 한국민들은 물론 해외 언론과 피겨 전문가들이 분노하자, 당사자는 말했다. “저는 준비했던 것을 다 보여드려서 만족합니다.” 처음부터 그녀에게 타인과의 ‘경쟁’은 무의미했던 것이다.

사실 김연아도 울었다. 홀로 남몰래 울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즐거분해서 울었다. 끝까지 자신을 이기고 왕좌에서 내려왔기에 행복해서 울었다.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피겨선수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울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 @mkhj2357

돼지갈비 1인분 4,500원

삼겹살 1인분 4,500원

제주가브리살

제주황제살

제주삼겹살

제주오겹살

제주뒷고기

고기야 좋다~

우리돈

제주돼지전문점

대한민국 최저가격 670만원으로 돈버는 전문점을 업종변경 오픈해 드립니다

우리돈 전문점의 특성

1

기생비 로열티 물류보증금 없음

2

저렴한 투자대비 높은 수익구조

3

엄선된 최고의 육질로 고객만족 추구

4

본사의 안정된 물류공급 시스템

본사 육가공 공장에서 원육을 가공후 진공포장 상태로 공급

본사 육가공 공장에서 양념육 가공후 개별포장하여 공급

본사의 한계품 식자재 공급으로 주방장이 필요없음

5

기준시설 최대활용으로 인테리어비 절약

무이자 무담보대출 1~2천만원

우수개방점

여수 웅천점

햇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상이 고르지 않고 들뜬 날부터는 손님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광고를 접하고 본사의 친절하고 정성어린 상담과 도움을 받고 오픈하여 지금은 너무 좋고 잘매고 싶어요.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우수개방점

전주 중화산동점

신문광고에 남다른 세도는 프랜차이즈가 나오지만 우리돈을 보는순간 이거다 싶어, 상담후 기존 개방점을 방문하여 시식후 오픈을 결심했습니다. 손님이 많았다고 말씀 해주시는 한이기에 정말 바쁘게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하실분들 많실이지만 마치고 할 도전해 보세요. 저처럼요~~

우수개방점

거제점

기준광고집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매출 감소로 힘들어하며 동배우를 찾던중 우리돈 무한리플을 알게되었습니다. 메뉴에서 알수있듯 소비자가 부담없이 식사를 할수 있도록 배려한 메뉴얼로 매출로 이어지는 열쇠와 생각과 오픈을 결정했습니다.

원리를 알고 만든 우리돈의 좋은 음식이 장사가 잘 될수밖에 없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2월 예정 및 오픈점

전주중화산동점 | 여수웅천점 | 거제점 | 신대방점 | 금곡점 | 경주점 | 순천연향점 | 울산일산점 | 정선점 | 원주점 | 구미점 | 인천송도점 | 제주대점 | 군포당점 | 송림점 | 마천점 | 순천대점

우리돈

본사: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0-31

공장:경기도 고양시 일산 백석동

상담문의 (02)383-1277